

# 가을철 열성질환

성묘나 밤줍기 등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이 되면 가을철 열성질환이란 병의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. 야외활동 후 감염되기 쉬운 가을철 열성질환이란 제3군 법정전염병에 속하는 쯔쯔가무시병, 렙토스피라병, 신증후군 출혈열을 말한다.

## ■ 쯔쯔가무시병

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의 피부에 붙어 조직액을 흡입할 때 균이 혈액으로 주입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발열질환이다. 발일, 성묘, 감 혹은 밤을 따러 다녀온 후 1-3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발열, 오한, 두통이 발생하고, 발병 후 일주일 경에 몸통에서 시작하여 사지로 퍼지는 피부발진이 생긴다. 특징적으로 털진드기 유충이 물은 자리에 고사딱지가 발생한다. 진단이 될 경우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약으로 대부분 잘 치료되지만, 심한 경우에 쇼크, 호흡부전, 신부전, 뇌증, 다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.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.



## ■ 렙토스피라병

감염된 동물(설치류와 소, 돼지, 개 등의 일부 가축)의 소변으로 Leptospira interrogans이 배출되어 물이나 흙을 오염시킨 뒤,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사람에게 우연히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. 2-20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, 두통, 근육통, 오심, 구토, 결막충혈 등이 4-7일 간 지속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후 2-3일 경에 기침, 객혈이 발생하여, 간혹 대량의 폐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다. 진단이 될 경우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약을 투여해서 대부분 잘 치료된다.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의 수영이나 작업을 피하고,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.

## ■ 신증후군 출혈열

한탄바이러스에 감염된 등줄쥐 혹은 서울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궁쥐의 소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,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질환이다. 5-42일(평균 2-3주)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, 발열, 두통, 안구통, 요통 등을 증상으로 시작된다. 예방을 위해 풀밭이나 들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.

### 이렇게 주의해요

-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, 긴 양말로 피부노출을 줄이고 토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.
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눕지 않는다.
- 야외 활동 후에는 작업복이나 속옷, 양말 등을 세탁한다.
-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한다.
-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.

\* 논밭 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두통, 고열, 오한, 근육통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나 피부발진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

\* 본 내용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승순 교수가 제작하였습니다 \*